지역 소식통

정읍시, 경비 · 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나서

정읍시가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 경비와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근로자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항목은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의 개·보수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 구입·교체다.

지역 내 37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이며,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통합방위 우수기관 제2작전사령관 표창 수상

부안군은 12일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통합방위 우수기관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된 후로 이 날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됐다.

부안군은 작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부안대대와 연계하여 훈련 및 실제 상황발생 시 CCTV영상을 부대에 공유하여 신속 대응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능력과 태세를 견고히 하는데 힘을 썼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부안대대의 각종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보에 기여한 공으로 김연태 안전민방위팀장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에도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굳건한 통합방위태세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고창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미애)가 지난 11일 고창지역 15개 여성단체 회원 40여명과 함께 고창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야외활동을 재개하며 고창천변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해 봄맞이 정화활동에 나선 것이다.

고창천의 시작점인 온천교에서 고창시내의 끝지점인 죽림교까지 6㎞ 거리의 천변 주변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진행했다.

신미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여성단체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권익현 부안군수, 재선 도전

부안발전 위해 온 심혈 기울여… 큰 꿈을 완성하기에 4년은 부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열리는 가운데, 권익현 부안군수가 12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부안발전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넓은 바다에 나가본 자만이 큰 물고기를 잡고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보듯이 부안의 큰 꿈을 완성하기에 4년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안은 권익현의 능력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경험 많고 유능한 재선 군수가 돼 부안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재선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조성, ▲활력있는 농.축.어업의기반 조성, ▲청년 친화도시 젊은 부안만들기, ▲한평생 복지실현, ▲미래비전 부안형 ESG행정을 선도, ▲자연을 더 가꾸어 관광자원화, ▲김치산업 클러스터조성, ▲부안형 푸드플랜2.0 판매망구축, ▲경쟁력있는 미래부안을 열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출마 선언중에 현재 부안군에 돌고 있는 권익현 군수와 전 비서실장의 문제를 삶고 있는 땅 투기 논란이 쏟아졌던 것은 다른 후보자들이 투자가 뭐고, 투기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하며, 형에 대한 클린사업도 입찰받아 한 사업이기에 힐뜯고 비난하는 구태의연하는 정치는 그만하기 바란다며, 지난 4년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주 정읍시장 후보 경선 본격

유진섭 시장, 예비후보 등록

민선7기 정읍시장 유진섭 예비후보는 지난 1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간 현직 시장으로서 본격적인 당내 경선전 참여가 불가능했던 유진섭 정읍시장은 재선을 위한 일차 관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추천 경선에서, "당내 후보들과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정책 경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답은 유진섭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건 유진섭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예산 1조원 확보, 전국 최고 수준의 연수도시, 사계절 관광도시 구축,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도시 등 그간의 여러 성과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반려동물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의 민선8기 사업 계획을 제대로 알려서 시민과 정읍만을 생각하는 검증된 시장임을 확인받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5개 장애인단체 200여 회원들 "유진섭 지지"

정읍시시각장애인협회(회장 김기태) 정읍시농아인협회(회장 이상점) 정읍시장애인부모회(회장 정인승) 정읍시신장장애인협회(회장 조정희) 그리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회장 하재필)의 정읍 지역 5개 장애인단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섭 예비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5개 단체와 2,000여 회원 일동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정치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 정읍시장에 당선된 유진섭 예비후보는 잦은 방문과 소통을 통해 아픔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진섭 예비후보가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증차와 장애인 콜택시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노후 된 시설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진섭 예비후보만이 정읍시 1만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인복지 완성의 최고 적임자임을 거듭 확인하며 맞춤형 관광정책, 굴지의 연수원 유치 등 유례없는 정읍 발전을 이끌고 있는 유진섭 예비후보와 함께 정읍 시민 모두의 행복과 희망찬 정읍의 미래를 위해 굳건하게 연대하고 끝까지 동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유네스코 유산기행' 선보인다

고창군-유네스코MAB한국사무국, 지역 생태여행 프로그램 개발

전북 고창군과 유네스코MAB한국사무국이 손잡고 지역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유네스코MAB한국사무국이 손잡고 지역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6일 유네스코MAB(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한국사무국 관계자 등이 '대한민국 유네스코 유산기행' 개발을 위해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답사단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해변걷기, 고인돌공원 탐방, 국가지질공원 명소 병바위 탐방, 운곡람사르습지 트래킹 후 호암마을 생태밥상을 맛봤다.

유네스코 MAB한국사무국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을 무대로 한 '대한민국 유네스코 유산기행'을 전국 최초로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MAB사무국,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고창군, 운곡습지생태관광 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5월 팸투어 시작으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찾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패널티 감점 없이 경선 참여 통보받아"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년 전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사과했다.

이 예비후보는 "4년 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선관위에서 무혐의를 받은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당하는 아픔을 겪고 탈당했었다."고 밝히며,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것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최근 경쟁 후보 측이 저를 향해 '복당을 못한다', '복당을 하더라도 패널티(감점) 때문에 어렵다'는 등의 거짓선전을 해왔지만,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저에게 '감점 없이 경선에 임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당에 감사를 표했다. 이로써 이 예비후보에 대한 '감점' 시비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김민영 전 정읍신림조합장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장학수 현 조합장의 지난달 31일 기자회견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김 전 조합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학수 정읍신림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임 조합장을 비롯한)전임자들이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도 없이 장부(전산)에 기록도 없는 엉터리 회계, 부당한 예산전용을 통해 약 4억 원의 분식·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후 12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한데도,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아니다'는 변명만을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균형 있는 영양 공급에 도움"

정읍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아이들 식습관 개선 효과

정읍시가 지역 내 34개 초등학교 1,039명의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무상 공급한다.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은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 국산 제철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공급방식은 학생 1인당 1회 150g 내외로 주1~2회 연간 30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조각 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등의 형태(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로 가공해 어린이들이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하게 돌봄교실 내 간식 제공이 어려울 때는 택배를 이용해 해당 가정에 공급하거나, 하교 시에 배부하는 등 '과일 간식 꾸러미'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사용되는 과일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표준규격 상품 이상의 과일이다.

HACCP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를 통해 과일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여러 종류의 과일로 구성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길만 정읍시의원 출마 선언

7대 정읍시의회 의원으로 경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 안길만씨가 12일 오전 9시 30분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6.1 지방선거 정읍시의회의원 다 선거구 (연지 농소 소성 입암) 출마선언기자회견을 했다.

안길만 예비후보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정읍"을 만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길만이면 좋겠네"라는 주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전한다고 밝혔다. "주민의 마음과 눈으로 주민이 가르키는 방향에서 정읍 시정을 꼼꼼히 살펴, 주민의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발상의 대전환시대에 "정읍 아이들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별자리를 보며 꿈을 키우듯 메타버스와 제페토를 즐기는 가상세계의 선두도시로 만들고,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도록 1학생 1재능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노후빈곤에서 탈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리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정읍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장단연합회, 15대 신영수 회장 취임

고창군이장단연합회가 지난 9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수, 고창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4·15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수와 고창군의장이 축사를 전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섰던 이기환 전 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로 취임한 신연수 신임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임 회장인 이기환 회장은 "어려운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연수 회장님께서 고창군 이장단연합회를 잘 이끌어가시리라 믿는다"고 이임사를 갈음했다.

새로 취임한 신연수 회장은 "3년간 이장단연합회를 잘 이끌어 오신 이기환 전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민·관 화합을 이끌고 이장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수는 지난 3년간 지역발전에 공헌한 성송면 김귀현 이장단협의회장 등 이임협의회장 7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의사일정 돌입

정읍시의회(의장직무대리 이상길 부의장)는 12일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상임위 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상정된 28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수시분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살핀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다루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